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총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3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형수

[달고오묘한 말씀/3월 21일 금요일]

십자가의 승리(The Triumph of the Crucified)

2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I. 그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칭함받던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 벌어진 얼마 후, 또 다시 예루살렘은 그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고 다니는 예수의 제자들로 인하여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도(道)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또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다니는 제자들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돌이키기보다는 권위와 전통으로 잘못을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능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행 4:7)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고, 베드로는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라'(행 4:12)라고 답변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뭇없이 되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라고 불러주는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세 가지 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하게 그를 부르는 개인적인 명칭인 반면에(마 1:21),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전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높임과 존경을 받는 분이시요, 신령한 권위를 지니신 분으로 이해되신다(엡 2:12). 또한 애굽의 모든 보아나 세상적인 모든 축복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을 희상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이라면(히 11:24~26),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을 때 주어진 이름이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겸비' 하심을 보여준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평범하고 흔하게 사용되었던 이름이었으며(민 13:16, 수 3:1, 골 4:11, 히 4:8), 심지어는 나쁜 자들의 이름이기도 했다(행 13:6). 이와같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었던 것임을 생각할 때,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복음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복음서가 '예수'의 낮아지심의 때를 설명하고, 서신서는 그의 높아지심의 때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의 의미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영광의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그의 비천함과 겸손함을 강조할 때에만 사용했고(고후 4:10, 빌 2:10, 살전 4:14, 히 2:9, 히 12:2, 히 13:12),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말한다(행 2:36). 이처럼 주께서 자신을 비어 영광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신약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하며, 반대로 구약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역사적 실제 인물인 '나사렛 예수'로 나타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 '예수' 그 이름은 '여호수아'로도 불리워지는 데 '주는 구원하시나'라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구세주, 세상의 구주자임을 나타낸다(마 1:21). 그 이름은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으며(행 4:12), 만국으로부터 나아온 그의 백성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제한성'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다(벧전 2:9, 딤후 1:14, 행 15:14). 그리고 그의 이름은 넓고 깊은 구원의 범위를 가지는 '구원의 무한성'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근원되심을 내포하고 있다고(고전 1:30).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한 것이며, 그가 행할 활동의 모든 내용과 제목과 중심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할 그 모든 이유가 그의 이름 안에 충만하게 담겨져 있으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은 매우 장성한 말씀의 성취인 셈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이 보배를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한 제언(6)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은 그리스도의 중보됨을 의미

진정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진정'이 비로 진리를 표명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밀미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의 선포와 연관은 개념이다. 그리고 '진정'이란 그림자와 영도의 매개체를 통하여 알고 또 확신과 피의 제사의 방법에 의존하고도 알고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히 9:24).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참된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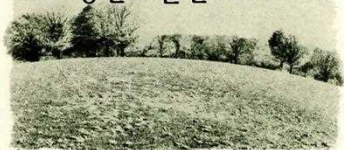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진정이란 예배에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 형태이다. 곧, 구약적 계사가 신약시대에서 성취된 형태라는 뜻이다. 이것은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 사건인 그리스도이요, 이에 근거한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상 이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구약적 진리에 순종하고 드리는 예배이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결코 사람들의 추종이나 깨달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참된 진리를 의지하며, 그 진리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된 사실,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고후 12:10). 그러므로 우리에 배는 신약적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신약적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유대인의 예배는 형식적이며 신성한 것이 아니었고, 사바타(일)의 예배는 성직이 가르치는 바에서 벗어났으므로 진정성이 없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가장 근접해 있던 이들조차 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차이를 있었으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의해 인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Westcott).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하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된다는 의미(요 14:21)와 15:8, 성령이 거르신 진리 위에서 성경 말씀대로 예배하야 '성경 계시와 관습이 드러나야 인간적인 예배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직접 만나서 죽음에 이르므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으므로 14:8,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야 한다.

진정은 진실을 의미

진정에 대한 세 번째 측면은 '진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령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진실성이면, 진정은 인간적인 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령을 보완한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하자면, 진리를 담아야 할 그릇인 인간의 마음이 진정으로 정결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순결함은 마음에서 뿐만이 아니라 살 속에서도 드러나야 할 태도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은 하나님과 인간의 의사 사이에 관련된 일들에 참된 것, 즉 거룩한 진리와 화평한 생활방식을 뜻하기도 하므로, 진정은 영(靈) 뿐만이 아니라 몸을 다 바쳐서 예배하려는 것이다(골 3:12).

당신의 들판에서



나는,
그대 눈길 닿는 들판이고 싶습니다.
미소 머금으신 얼굴 빛에
긴 긴 자난 밤,
힘든 잠에서 깨어나는
그대와의 일은 아참이고 싶습니다.
바위 뿔 남따라지 은빛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가 2:14)

어느덧
취약되었 해 저무는 때가 오면
나는,
그대 머무르던 자리
가슴으로 터득어 느끼는
그대만의 들판이고 싶습니다.
멀리 떠나 계셔도
하루 종일
함께 한 그 자리에
수줍게 피어난
들꽃같은 그대 수줍,
고고이요 간직하는
하나 뿐인
그대와 나만의 자락이고 싶습니다.
해무슬릴 여자들이 너희에게 내가 부끄럽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라(루 11:58)

CHILDREN OF LIGHT

(Ephesians 5:8-14)

"for you were formerly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for the fruit of the light [consists] in all goodness and righteousness and truth),..."

Today's Bible message begins by saying, "for you were formerly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v. 8). Do you remember that before Jesus came into your life you were darkness, and that when He came into your life you became God's child? Believers are children of light and their walk must demonstrate this fac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a person before conversion and after conversion. There is a big change, a foundational change, a wonderful change that occurs when a human being accepts Jesus Christ as Lord. Personal efforts and achievements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change. It is not a progressive change. It is a change from death to life that only Jesus Christ can make happen. Before Christ, you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Ephs. 2:1). After Christ, you are "alive together with Him", "raised up with Him", and "seated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Ephs. 2:5-6). I am asking you, do you have this chang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Christ. Before Christ, you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of the spirit that is now working in the sons of disobedience"(Ephs. 2:2). In other words, you lived your life totally against Jesus Christ. Are you still living and working for this world? Do you still have to have this and have to do that? Do you still crave material possessions? Do you still have worldly obsessions? Do you desire the things of this world more than the things of heaven, or have you changed? Do you follow the customs of your environment, or does the word of God lead you? Has the cross really changed you, or does selfishness control you? I am telling you that your own desires, your eagerness to do whatever you want from your heart and mind, are actually signs of darkness. They are behaviors from the sons of wrath.

The grace that saves you through faith is a gift from God. It is not a result of your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Because it doesn't come from your acts, you can't find pride in yourself. Your eternal salvation, life, and change is God's doing, not your own! Believers become children of light because of Jesus Christ. Those who hold Jesus as Savior are not children of darkness. They are children of light, brought from far off to near Jesus

Christ. What a change! Through His blood, you are related to God.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darkness and light. Don't return to darkness. Don't be deceived by the evil in the world. Do not teach your children, friends, and relatives how to be good and how to live this life without Jesus Christ. Without the change from darkness to light, every lesson is hypocritical. God's children are "being built together into a dwelling of God in the Spirit"(Ephs. 2:22). You have to go to Jesus, you have to take your cross, and you have to go the suffering way. Not all the goodness in the world can change you. Only the goodness that comes from faith in Christ brings eternal light.

Today is the 4th Sunday of Lent. Jesus is walking toward Calvary to take the cross. Let's follow Him because we are children of light. Beware of hypocrisy. Don't put the power of change in your hands. Break it, repent, and confess Jesus as your Lord. You have to stand on His side, not the side of darkness. The side of darkness is the popular, politically correct, and painless place. Indeed, the whole world may enjoy this way of life. They envy it to the utmost extent. My dear friends, you cannot find from there the cross of Jesus. That place appears to have joy and amusement, but it holds no hope. Everything about it is decaying, immoral, and impure. It's a place filled with greed and lust. Don't even speak of its filthiness in silly talk. "For this reason it says, 'Awake, sleeper,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v. 14). Here is the call to wake-up from the pagan sleep of sin and death, with the promise that Christ will then shine on the believer with the saving light of His truth. The light that comes from God exposes all things. Whenever that light comes to you, you can see what's wrong. When you do, you have to tell your friends what they're doing wrong—you have to rebuke them so that they know what is wrong. If you remain quiet, they won't know. You have to come to the cross of Jesus Christ all the time, so that you can see the difference between darkness and light. Repenting bothers your pride and denying yourself makes you angry, but if you don't, your flesh and spiritual life are dead forever.

Let's live in the light. Then we can try to "lea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v. 10). We can purposefully not participate in "the unfruitful deeds of darkness, but instead even expose them"(v. 11). We can rebuke the sins of other believers. In so doing, we don't talk behind their backs, but in front of them, "for it is disgraceful even to speak of the things which are done by them in secret"(v. 12). When the light exposes darkness "all things become visible... for everything that becomes visible is light"(v.13). It is easy to see why it is necessary for believers who once were darkness to expose other believers'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Their deviant path does not please the Lord and the light is necessary to expose these works of darkness, which are contrary to the Lord's will. They are commanded to "awake" from their spiritual sleep and rise from the path of death. Their repentant response will please God and Christ will shine on them with approval.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Ephs. 1:3). You have to have this blessing. Have you changed? It is a heavenly thing to come to the Light. There you can praise Him and see all the spiritual blessings. If you belong to the darkness, all you can see are the blessings of darkness (money, fame, and fun now). Believers are children of Light. The cross makes you beautiful. It makes you a light in the Lord. Amen.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

오늘의 성경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8절).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신자들은 빛의 자녀이므로 그들의 발걸음은 빛의 자녀임을 실제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후의 사람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 근본적인 변화, 놀라운 변화입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는 이러한 변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변화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엡 2:1).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고”, ‘함께 일으킴을 얻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지게’ 되었습니다(엡 2:5~6). 과연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전과 이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사람들이었습니다(엡 2:2).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여러분의 삶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묶여 살아가며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며, 이 세상에 속한 삶의 연속입니까? 여전히 물질적인 소유를 갈망하고, 세속적인 집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의 관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심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욕망,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대로 행하려는 열정은 실제로 여러분의 표식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진노의 자식들로부터 나오는 행동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부터 오지 않으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 그리고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결코 여러분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의지하는 자들은 분명히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만 고,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이끌려 빛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란 말입니까?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으로 되돌아 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악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친구,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의시킨 채, 선택하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변화가 없는 모든 교훈은 외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자들입니다(엡 2:22). 여러분은 예수께로 나아가야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하며,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들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선행만이 여러분을 영원한 빛으로 이끌어줍니다.

죄를 드러냄

오늘은 사순절의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들로서 그를 따라가십시오. 외식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수단으로 변화를 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방법을 깨뜨리고, 회개하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고독의 편이 아닌 예수의 편에서 십자로의 어둠의 편만 명성과 정치적인 판단과 고통없는 장소를 찾습니다. 진실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삶을 즐기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것들을 최대한 확보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장소는 기쁘고 즐겁게 보이지만, 결코 소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부패함과 부도덕함과 순결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곳은 탐욕과 정욕으

빛의 자녀

(엡 5:8~14)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 ”



김성관 목사

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어둠에 속한 더러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르시기를 잡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실라 하셨습니다(14절).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구원의 빛을 신자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죄와 죽음으로 잠든 이방인들을 깨우기 위해 부르시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빛은 모든 것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에게 그 빛이 비추어지면 여러분은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친구들의 잘못에 대하여 말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도록 책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들의 잘못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어둠과 빛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회개는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화나게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육체와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둠을 이김

빛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볼 수 있습니다(10절). 우리는 결단력 있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할 수 있습니다(11절). 빛에 거할 때, 우리는 다른 믿는 자들의 죄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은밀한 그들의 행위들을 그들의 등 뒤에서 말하지 않고 그들의 앞에서 정중하게 말하게 됩니다(12절). 빛이 어둠을 비출 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보다 밝아나”(13절)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한 때 어둠에 있었던 신자들이, 왜 다른 신자들이 어둠 속에서 행한 악한 일들을 필수적으로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시켜 줍니다. 그들의 그것만 같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그래서 어둠을 가운데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책망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사랑의 감화로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책망에 대하여 그들이 회개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들 위에 빛을 비추시게 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받는 축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엡 1:3). 여러분은 이같은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빛으로 나오는 것이 하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어둠에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돈이나 명성 또는 쾌락과 같은 어둠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자는 빛의 자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빛으로 만듭니다. 아멘. ■

3 **젊은, 우리를 복음의 사도**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다려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간증과 각오들을 풀어놓는다. 그들의 간증과 각오들을 통해 복음의 소명을 다시 돌아보고, 올 한 해의 단기선교를 계획해 보자.

처음엔 단기선교를 가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선교와 나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고, 괜히 부담스러웠고 어려웠다. 그런데 내 동생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막연히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차에 대학부 팀장님의 권유로 작년 12월 말에서 올 1월 초 무렵에 인도 북부에 위치한 '편잡'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 박덕양 장로님을 팀장으로 구성된 10명의 대원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심수도 많이 하고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갔다. 우리가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외국인으로서 신기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원들을 반겨주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크리스천 가정이나, 두가정씩은 있었고, 그들이 나서서 많이 도와주었다. 몇몇의 이슬람교, 시크교도인들이 복음에 대해 냉담하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기독교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계신분이 있었는데 집사님 중 한분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자 거기에서 반박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셨고, 또 우리 일행의 운전을 맡으셨던 분도 시크교도였는데 처음엔 운전만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적극적인 도우미가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로 인해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심과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하다. 또 그 귀한 일에 나를 비롯한 우리대원들을 도구로 써 주셨음에 감사하다.

이번엔 처음이라서 기도도, 준비도 많이 못하고,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또 고집대로만 했었는데, 내 모든 생각과 경험을 내리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하다.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에게 말씀이 꾸준히 들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선언주지자)



김효민 (대학부)

충현 지교회, '방림교회' 설립예배

진학래 (집사, 남미 전도대 집행위원)

전도위원회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이뤄 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2년도부터 교회였을 오천에 충현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 계획했고 올해 비로소 그 기도가 이뤄져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방림3리에서 '방림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예배에서 317장 찬양 "어서 돌아오" 부를 때는 정말 평택, 포승, 방림 주민의 한 영혼을 주님이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방림교회에 십자가 탑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 탑을 보는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신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방림교회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각 교구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충현 전도대 사역에 참여하여 주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이 땅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지교회들이 세워지길 기도했습니다.

방림리가 가가 호호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와 같이 누릴 수 있길 청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시요.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중간중간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우크라이나의 농촌 지역을 단기 사역지로 정했습니다. 작년 단기 선교 때 만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다수가 정교회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받는다고 알고 있어 부처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제2차 대전에서는 독일의 예에서 큰 피해를 당해 아픔이 많은 민족입니다. 작년처럼 농촌지역으로 가서 버스를 교통 수단으로 삼아 이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는 저희 팀원들이 영적 전투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혼을 향한 공룡의 마음을 쫓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배우자를 가진 팀원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해 없이 단기 선교를 가려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명을 받았습시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로 깨달아 큰 감동과 감격으로 사명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박숙길
8교구 2지역장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1. 지역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알마타, 췌켄트, 크질오르다로 단기선교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특히 크질오르다 지역은 구 소련 때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가난한 농촌 지역입니다. 췌켄트에서 기차로 18시간이나 걸리고 지내기도 힘들지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들의 마음이 이뻐지지 않아 꼭 다시 갈 예정입니다.

36가정으로 이뤄진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지역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팀원 모집이 어려웠지만 현재 모든 부지역장 및 구역장들을 비롯해서 지역 식구 7명과 같은 교구 내 타 지역 2명을 포함하여 9명이 확정되었고 기도 가운데 청년 및 대학부에서도 2-3명 정도 지원 받길 원합니다.

2. 지역장 중심으로 선교팀 구성에 여러 가지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팀장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새벽 기도회와 저녁 평가회를 인도해야 하는 부담감이 가장 큼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3.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제로 삼고 싶은 성경구절과 그 이유는?

"그러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명호
9교구 9지역장

(임정식 기자)

♡이문희(청년부 신입부 조장)

조원들이 초신자들이 아니라 대학부에서 올라왔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고 있지만 서로 교제하면서 금금한 말씀도, 해결되지 않는 말씀도 많다.

조원들과 교제를 나눌 때 믿음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로 10:13), 과연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고민한다. 마침 지난 주 설교가 이에 대한 것이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 것은 겉으로만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어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누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잘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납득을 잘 못하는 조원도 있다. 믿음은 지식이나 보이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과제이다.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역시 믿음이다. 죄, 십자가 모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많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선물이며 은혜이다.

♡장지훈(청년부 신입부원)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며, 마음으로도 믿고 있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나의 딜레마이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고 있지만, 교회의 사람들이 나와 한 주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말씀을 배우며 이것을 성정시키고 싶다.

신입부 이야기



♡김성은(청년부 신입부원)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행위가 있는 믿음의 문제 즉, 믿음과 행위의 관계이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과 성도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믿음으로부터 행위가 나온다는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러한 현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확실한다.

♡함수정(청년부 신입부원)

지금까지 신입부에서 배운 말씀 중에 십일조에 관한 것이 제일 힘들다. 여기서 십일조는 꼭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시인하는 의미로서, 주인 되신 주님께 마음과 삶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삶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드러라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내게 와 닿지 않는다. 앞으로 공부를 통해 십일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게 되길 기도한다.

♡원하나(청년부 신입부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서 대부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받아들이지만,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당장 말씀대로 살아야 할 순간이 닥치면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다. 말씀이 삶 속에 녹아져 말씀과 삶이 일치되게 하고 싶다.

사람은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맹종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개념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맹종

하는 개념을 학문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학문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면서 학문은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완전히 신용할 만큼 공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성경도 학문의 틀에 맞춰 읽으려는 경향이 있다. 성경 속의 이적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창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놓고 고민한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학문과 맞지 않으면 의심해버린다. 과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문, 즉 고고학, 철학, 문학, 심지어 물리학의 텍스트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비평한다. 그리고 학문과 맞지 않으면 성경을 의심하며 성경의 오류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학문을 천한 초동학문으로 간주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 하느냐”(갈 4:9). 이 말씀은 진실이다. 인간의 학문이야말로 근거가 없다. 인간의 학문은 일단 논리적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을 한 후, 그 가설과 실험이 일치하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애초에 근거가 완벽하지 않은 것이다. 유골을 통해 시체를 추정하는 것도 단소를 주입시켜 부식되는 속도에 따라 그 시대를 맞추는 것인데, 이것도 단소가 부식되는 속도가 세월과 비례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진실이라고 믿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소를 이용한 이 추정들도 모든 학자들의 실험에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를 들면 인류의 발생을 2만 년 전으로 추정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도기장이와 도기

성경과 학문

만 년 전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7일 메트로 신문에서는 “미국과 일본 학회에서 ‘네안데르탈인’은 ‘크로마뇽인’과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

으므로 크로마뇽인의 조상 유인원이 아니며 전혀 다른 종으로서 진화 과정에서 멸종해갔다고 밝혔다”는 기사가 실렸다. 인간의 학문은 이렇게 변질된다. 뿐만 아니라 두개의 학문이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지만 융이 프로이트에 반대되는 이론을 제시하고 나서는 두 이론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있다. 문학과 한 작품을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이유는 작품을 보는 방법적인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학문은 얼마나 천하고 열등한가? 그렇다고 세상의 학문을 아예 보지도 말라는 것은 아니다. 공부하는 하되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며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초동 학문을 좇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골 2:20).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초동 학문을 헛된 속임수라고까지 표현한다(골 2:8).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초동 학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합당한 가설인 듯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부정하면 사람의 지식을 버린다.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요한도 세상의 학문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길 만큼 기뻐없이 말했으며(행 4:13), 다니엘도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지식을 받았다. 진정한 지식을 얻고 싶다면 세상의 학문을 버리고 성경을 보라. 성경은 어떤 세상의 학문으로도 쫓아낼 수 없는 가장 큰 진리이다.

(관요길 기자)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우리 교회 솔로리스트들은 찬양대 합창 뿐 아니라 예배 전 찬양, 헌금 찬양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솔로리스트들을 찾아가 찬양으로만 듣던 그들의 간증을 대화를 통해 나누고자 한다.

1. 특별히 즐겨 부르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을 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 기도했다가 있고 있었던 것 마저도 기억하시고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 어떻게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쳐오다가 별다른 갈증 없이 공부했고, 이 악기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순한하고 자연스럽게 흘러왔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시 23:1)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에 간섭하셔서 전적으로 저를 인도하셨음을 깨달았어요. 또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3. 성주는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또 기도제목들 말씀해 주세요.

바이올린으로 찬양곡을 켤 때도 입술로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사를 마음 속 깊이 생각하면서 연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한 사람이라도 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의 선생
밴델 오케스트라 악장
(현혜원 기자)

교구위원회 일꾼 변동 명단

교구	구역	부지역장	교구	구역	부지역장	교구	구역	부지역장
1	충현2	정성숙	9	공릉	김혜선	14	철산1	임용재
2	언주	정기숙		마곡1	장금자		철산2	이병숙
3	신사	서인희		창학	최이수		광명2	순순자
3	은마3	송순자	12	강촌	이규숙	15	상도1	조순림
	은마4	송순자		호수	이규숙		남한	신재금
5	개포1-1	하두연		구월산	최하자		사당1	김옥남
	개포1-2	하두연		소만	김재순		불천2	인태숙
	개포1-3	하두연	14	신길	김영민		불천6	전정희
6	잠1-1	김순임		목3	김영미		신림6	김남식
	잠1-2	김순임		목4	김영미	16	신분1	변금순
7	암사2	황기선		목5	김경애		신분2	최계순
	길동1	이규숙		구로1	오춘실	17	묵린	신옥자
8	행당1	박윤석		구로2	김정일		구성1	서희자
	금호1	연화숙		개봉1	이경애		상갈	한경숙
	금호2	연화숙		개봉2	김성금		신정1	김용숙
	옥수3	양신자						

교구	구역	남성구역장	교구	구역	남성구역장	교구	구역	남성구역장
5	개포1-1	황재현	11	인현	김희태	15	신림1	강석화
	개포1-2	황재현		오창	김희태	17	성원	권영일
	개포1-3	황재현		율지	김희태		상현1	권영일
6	잠1-1	오춘성		쌍림	김희태		상현2	권영일
				장충1	김희태		상현3	권영일
				장충2	김희태		상현4	권영일

교구	구역	구역장	교구	구역	구역장	교구	구역	구역장
3	도곡, 진달래	김영은	9	중화	임난향	13	등촌2	김정순
	도곡, 한신	김영구		창학	황영숙	14	목5	김수자
4	기동1	김민희	10	창동1	남은희		신정	김광연
	잠1-1	백옥자		창동2	김현옥		사동2	이미희
	송파대림	김인희	11	송인	정영숙	15	남한	김혜성
	오곡대림	김인희	12	원당	한금자		사당3	김영희
8	구이3	김영중		소만	임정희		불천8	이정순
	마장	조명자	13	등촌1	김미애		신림6	임영애

교구	구역	권할	교구	구역	권할	교구	구역	권할
1	한서4	김영희	4	빈포3	김성숙	7	고덕3	채영애
2	한양1	이기엽		사래1	박송애		둔촌한대2	이강혜
	개내1-1	김영중		방배1	오영자	8	마장	김신자
	개내1-2	김정애		방배4	주미야		금호2	변정자
4	기동1	안숙영		방배6	윤경자	11	송인	김숙자
	잠원1	이효순		신동아	정경각		목2	채지연
	잠원2	유이향		삼성1	전준자		목3	전진순
	잠원3	김정옥		삼성2	유경희		철산1	이미희
	잠원4	이 정		서초3	조소임		철산2	문미영
	빈포1	유춘남	6	서초1	안정희	15	불천3	설금예
	빈포2	구명남		방의1	알길순	17	수지2	최영숙

다름 주일 찬송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이 찬송의 성경적 배경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작시자와 작곡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곡인데 그리스도의 증인을 "빛의 사자"라고 표현하였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는 선교의 열정을 담아 찬양을 드리지.

- 1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취라
2절: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취라
3절: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취라
4절: 동서남북 어디서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취라

후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취라 죄로 어둔 밤 밝게 비취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곡은 4분의 4박자의 곡으로, 우리는 복음에 빛된 자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리듬에 유익하여 힘있게 찬송해야 한다. (천안위원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목순'성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교에 적을 두고 열심히 부처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손녀의 믿음생활을 지켜보다가 손녀의 전도를 받고, 아들과 며느리도 열심히 권유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것은 알지 못하며 확신이 없지만,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살아계신 분임을 느낍니다. 교회를 다닌 후에 변화된 일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늘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므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조상 섬기는 일' 때문에 믿음이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말아들의 가정도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한성동 통신현)

새·가·족·을·환·영·하·나·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59	황미경	2	청년2부	이기엽(2)	266	박영일	19	대학부	김성숙(4)	273	김성균	19	청년1부	윤 중(16)
260	정규영	6	청년3부	김금순(16)	267	박미숙	14	청년2부	박형태(14)	274	최덕영	19	청년1부	윤준식(15)
261	장기순	6	청년1부	이순자(5)	268	이옥순	14	청년3부	장덕태(16)	275	김민형	19	청년1부	현준봉(16)
262	최수연	7	청년1부	이진규(6)	269	백은화	15	소망부	박옥선(8)	276	김현정	19	대학부	김혜정(2)
263	정규영	8	청년2부	유상준(17)	270	김한나	19	청년1부		277	윤충만	19	대학부	최효일(15)
264	김종수	12	청년3부	송창우(1)	271	이현화	19	청년1부	권혜진(1)					
265	고숙자	12	청년2부	나혜선(12)	272	김해정	19	청년1부						

※ 순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싹터 ~

김 정 윤 (사랑부교사)

나는 어린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부 학생들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 나는 군 복무중 부대 근처에 있는 사랑의 집에 봉사를 갔었다. 그곳에 가서 내가 한 것은 시집보수와 그곳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뿐이었다. 봉사활동을 하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쳤지만, 몸은 불편해도 그것으로 인해 짜증 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기뻛다. 그 행복한 얼굴은 세상의 환경, 사람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들 안에는 신실하신 예수님이 계셨다. 그들을 보면서 늘 세상 걱정을 다 지고 사는 것처럼 오만가지 생각들로 가득 찬 내 모습을 돌아 보게 되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조차도 받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가득했다.

그런 모습은 제대 후에도 나에게서 지워지지 않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행복을 늘 거절하고 살았다. 가정, 학교,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말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 고민하는데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생겼다. 이로 인해 나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회피하게 되었다. 나는 여러 상황속에서 그분을 인정치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에 이끌려 내뱉는 말과 행동이 많았다. 서로를 용서치 못하고, 아픔을 감히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말이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부 지체들과 말씀을 보며 찬양부르던 심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행하고 인자하신 그분을 보게 하셨다. 그들 열

굴엔 예수님의 사랑, 선하심이 묻어져 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내려 놓는다. 그들은 그대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인간의 의지에 얽매어 주님의 사랑을 물었다.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전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본다. 하나님은 내게 영이 맑은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려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깨닫게 하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며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잘것없고 천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대학부, 사랑부, 앞으로 내가 서 있게 될 모든 곳에서 인내하고 용서하며 말로만 일으키면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인 3:18).



선교하는 우리교회

송 은 숙 (에바다부)



우리 에바다부에서는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선교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하였다.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마을이 선교한 여행 경로를 그린 지도를 따라서 주사위 던지기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을 하였는데 참으로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다.

바울 선생이 선교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었다. 바울 선생이 선교하면서 대 맞고, 욕에 간히고, 귀신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선교 지도의 정소를 옮길 때마다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저마다 선교에 대한 특강을 듣고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들이 많이 하면서 우리 총현교회 선교에 대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가졌다.

선교영상 시간에는 작년 겨울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갔다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선교단원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들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 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농아인들도 세계곳곳의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었다. 하나님 은혜로 선교에 대한 관심과 비전을 드림에 가질 수 있는 귀한 수련회였다. 앞으로 총현교회의 에바다부가 세계 농아인 선교의 선조기지가 되어 많은 농아인 선교사가 배출되고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민음의 학교에서

죄용서와 징벌 (삼하 12장)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죄의 열매인 아이를 요구하십니다.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가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10-13절). 다윗은 아들을 위하여 골방에서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16절). 다윗의 금식기도는 자기의 죄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아이(14-15절)를 보며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픔에 젖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16절).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기다린 애절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7일 후에 죽었습니다(18절). 다윗은 금식을 철회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20a절). 다윗은 신복들의 염려(17-18절)와는 반대로 아이의 죽음에 대해 별 동요 없이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깨닫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아닌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므로 죽은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참다운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용서를 받았던 더 이상 투덜대거나 불평을 하지 않지요. 다윗은 범죄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순종, 그리고 경배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집니다. 다윗의 진실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밋새마가 정에 솔로몬을 주십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마 1:6).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신 후에 복을 얹으셨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죄를 도말하며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고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은 아이 생각에 평생 동안 아픈 상처를 갖게 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벌과, 신자들에게 내리는 사랑의 훈계에는 자기가 있지요. 신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에는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행을 행보다 훨씬 가벼운 벌입니다. 이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권형일 기자)

모임

1. 권사 전례 회례회
일시: 30일(다우주일) 15:00
장소: 감리회홀
2. 성서 4차회 회례회
일시: 26일(수) 9:30~11:00 예배후
장소: 영아미실
3. 남산전도부 연합회 회례회
일시: 오늘 15:15
장소: 전도위원회실

결론

1. 이창기 군이행장 집사, 이영숙 권사의 아들, 9교구와 이창숙 양이계 두 집사, 박복식 권사의 딸, 인공로(화) / 3월 28일(화) 13:00, 갈릴리움

발세

1. 조성철 성도
전례준비위원회의 남편, 조영호 성도의 부친, 8교구 총이사로 3월 16일 별세, 3월 18일 장례
2. 유성재 씨
신복임 집사의 모친, 일제구 집사의 장모, 8교구 군자·송정구 / 3월 19일 별세, 3월 21일 장례

◆ 감사위원회의 전반기 회계감사 실시

1. 기 간: 2003년 3월 ~4월
2. 대 상: 각 부서 회계(전도회 제외)
3. 장 소: 감사위원회(교육관 302호)
4. 준비서류: 사안표 (2002년 12월, 2003년 1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통장

◆ 공동의회

1. 일 시: 2003년 3월 23일(오늘) 4부 예배 후
2. 장 소: 본당
3. 대 상: 등록 세례교인
4. 안 건: 장로, 안수집사 투표권

◆ 안수집사 후보 정정 안내



김재홍
나이 57
교구 17
남성구역장
새가루부 교사
번호: 13

지난주(3월 16일자) 주간총회 5면에 실린 안수집사 후보 총 13명 김재홍 집사의 사진이 잘못 나가기로 정정합니다.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주일)
설교자/기도자	이종대/이태식	이종대/조규호	이종대/정경남	이종대/할철주	이종대/김승곤	여국근/한영준	나광영/김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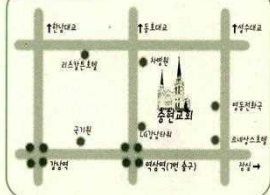
예배 담당안내 (3/19~3/23)

날짜	예배	예배 전찬양	사회	기도	설교
3/26 수요일	I		김동하	김영숙	세로문 사직(수58-12) 김성관 목사
3/26 수요일	II		장 훈	함자옥	눈병과 십자가(민24:9) 박인기 목사
3/28 금요일		특별찬양대(김현우/할렘루아 금관 앙상블/호산나 찬양대)	위원장		김성관 목사
3/30 주일 I			김영준	박한섭	빛의 자녀(렘58-14) 위원장 목사
3/30 주일 II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외/현악중주(할렘루아 오케스트라)	안창덕	박종규	빛의 자녀(렘58-14) 김성관 목사
3/30 주일 III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외/현악중주(할렘루아 오케스트라)	이종철	김영남	빛의 자녀(렘58-14) 김성관 목사
3/30 주일 IV		십자가를 짊어 오나 외/데나 김창근(임아누엘 찬양대 지휘)	정진호	김광남	빛의 자녀(렘58-14) 여국근 목사
3/30 주일 V		거기 나 있었는가 외/베를린 혼성 중창단(지도 김혜선)	정원민	최기홍	빛의 자녀(렘58-14) 김성관 목사
3/30 주일장량			고광환	윤우선	선양의 거룩한 성소(요6:32-40) 여성기 목사

충현기도의창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해주소서.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라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교구별 대신사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주소서.

교회오시는길



섬 · 기 · 는 · 분 · 들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9:00	본당
	II 오전 9:3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오후 5:30	본당
금요집회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당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간	차량
최소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찬양	오후 10:30	금요집회후 본당 앞출발

기도원 차량 운행
월, 목, 오전 10:00 / 월, 화, 목, 오후 7:00 (동문 정발실 앞 출발)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신교목회장	김은호 7교구장	노광현 당회 차장	오전근 당회 차장	이병학 교구장
최대원 신교목회장	엄필성 신교목회장	강보은 신교목회장	이 훈 신교목회장	남영우 신교목회장
정운식 신교목회장	김영길 신교목회장	조진경 신교목회장	김종구 신교목회장	최우길 신교목회장
김천재 신교목회장	이창호 신교목회장	차신득 신교목회장	김광남 신교목회장	이종식 신교목회장
이병욱 신교목회장	안종욱 신교목회장	임무천 신교목회장	최기홍 신교목회장	이갑재 신교목회장
김종홍 신교목회장	전종필 신교목회장	이정우 신교목회장	김건우 신교목회장	황영일 신교목회장
한승규 신교목회장	김영순 신교목회장	김한기 신교목회장	원용술 신교목회장	이형수 신교목회장
안동원 신교목회장	황의관 신교목회장	김규형 신교목회장	최윤덕 신교목회장	이계인 신교목회장
박덕양 신교목회장	이태식 신교목회장	정태두 신교목회장	박종규 신교목회장	권영호 신교목회장
조종환 신교목회장	배준식 신교목회장	김영달 신교목회장	이철호 신교목회장	박한섭 신교목회장
최지윤 신교목회장	이영환 신교목회장	박철구 신교목회장	정정길 신교목회장	신상수 신교목회장
강철형 신교목회장	조계승 신교목회장	김영은 신교목회장		

■ 부목사

이종대 신교목회장	정원민 신교목회장	김동하 신교목회장	서광진 신교목회장	박인기 신교목회장
여국근 신교목회장	류병희 신교목회장	이종철 신교목회장	김영준 신교목회장	여국근 신교목회장
김교섭 신교목회장	이수환 신교목회장	이유진 신교목회장	안창덕 신교목회장	방준영 신교목회장
나광영 신교목회장	정진호 신교목회장	김용덕 신교목회장	이성호 신교목회장	교광환 신교목회장
김광하 신교목회장	위원장 신교목회장	김기환 신교목회장	장 훈 신교목회장	
임현철 신교목회장	이희식 신교목회장	최종철 신교목회장	하종철 신교목회장	

■ 전도목사 이정철

■ 어전도사

정희의 신교목회장	신동자 신교목회장	윤운국 신교목회장	한영준 신교목회장	김연식 신교목회장
홍재호 신교목회장	이우주 신교목회장	김갑자 신교목회장	안태순 신교목회장	김정연 신교목회장
조자주 신교목회장	김덕필 신교목회장	김정진 신교목회장	장재구 신교목회장	최윤식 신교목회장
전승호 신교목회장	김영순 신교목회장	김경자 신교목회장	이수경 신교목회장	

■ 찬양감독 김갑구

■ 전담지배사 서준성

■ 전담집사 김소연

■ 단기선교사 강기일 (신도)

■ 협력선교사 하효성 (신도)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국어로 제공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